

周學海의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根瑩 · 李正泰 · 尹暢烈*

對周學海『讀醫隨筆·氣血精神論』의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根瑩 · 李正泰 · 尹暢烈

周氏在『讀醫隨筆·氣血精神論』中概括精氣神之總義爲：氣者，無形而有機者也。以其機之所動，有三焦之分出也。精者，有形者也。有形則有質，以其質之所別，有四等之不同也。神者，無形無機而有用者也。以其用之所成，故推見五性之大本也。概括精氣神之分類與所主爲：氣有三，曰宗氣也，榮氣也，衛氣也，主於命門；精有四，曰精也，血也，津也，液也，主於腎；神有五，曰神也，魂也，魄也，意與智也，志也，是五臟所藏也，主於心而復從於膽。概括精氣神三者的相互關係爲：大氣者，精之御也；精者，神之宅也；神者，氣與精之華也。

周氏認爲：衛氣爲熱氣，營氣爲濕氣，宗氣爲動氣，故衛氣有寒熱病，營氣有濕病·燥病，宗氣有郁結病，有勞倦病。血之質最重濁；津之質最輕清；液之質清而晶瑩，厚而凝結，重而不濁；精之質極清極厚，而又極靈；人身當中，血爲最多，精爲最重，而津之用爲最大；精血津液之病變多表現爲不足或虛脫。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與智，腎藏志。五神以血氣爲用，內藏於五臟，外顯爲喜·怒·思·憂·恐之五志。神之病變不可測，且又最不易治，總以調神與安靜爲根本治神之法。

Key Words: 氣血精神, 衛氣, 榮氣, 衛氣, 精

I. 緒 論

周學海는 清代의 著名한 醫家로서 字는 澄之(潛初, 健之)이고 中國 安徽省 建德사람이다. 淸·咸豐6年(1856)에 태어나서 淸·光緒32年(1906)에 卒하였는데 『內經』을 비롯한 많은 古醫書를 校勘하고 評注하였고, 또 自身의 心得과 見解를 反映한 『讀醫隨筆』과 『脈學四種』 등 著書를 親히 著述하여 韓醫學의 基礎理論과 脈診理論의 發展에 큰 貢獻을 하였다¹⁾. 特히 그는 『讀醫隨筆·證治總論』에서 무엇보다도 먼

저 「氣血精神論」篇을 두어 氣血精神의 問題에 대해 매우 深度있게 論述하였다.

여기서 周學海가 말하는 “氣血精神”은 사실 보다 精微롭고 根源의인 言語로 壓縮하면 곧 “精氣神”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讀醫隨筆·氣血精神論』의 첫머리에서 “醫者是 道之流也라 道家가 以精氣神으로 謂之三寶하고 不言血者是 賅於精也라”고 하여 앞서 “血”이 “精”에 內包되어 있음을 밝혀 둔 바가 있다²⁾.

精氣神의 理論의 源流를 살펴보면, 道家에서는 精氣神을 매우 重要視하여 人身의 三寶 또는 三奇라고 稱하여 왔고³⁾ 韓醫學에서는 精氣神이 人生의 三寶로

* 교신저자: 윤창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42) 280-2601, yooney@dju.ac.kr

1)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5.

2) 鄭洪新·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31.

3) 陳兵. 內丹學精氣神說. 氣功與科學. 1988. 第3期. pp. 6-9.

서) 人間の 生命을 構成하고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根本要素라고 強調하여 왔다(5)(6)(7). 精氣神에 관한 學說은 先秦時期的 『老子』·『莊子』·『管子』·『孟子』·『黃帝內經』 등 古籍에 이미 나타났고, 漢魏 時代 이후로는 精氣神 理論이 韓醫學과 道家에서 각기 다른 方向으로 發展하여 韓醫學은 生理學과 病理學의 次元에서 精氣神과 心身의 關係를 探究하는데 置重하였고 道家는 修煉과 養生의 次元에서 精氣神의 重要的 作用과 意義를 探究하는데 置重하였다(8).

韓醫學에 있어서 精氣神의 理論은 『黃帝內經』에서 이미 그 根幹이 形成되었는데, 『黃帝內經』은 人體의 生理를 論함에 精氣神의 作用을 매우 重要視하여(9)(10) 以後의 韓醫學理論에 重要的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周學海는 『黃帝內經』의 精氣神 理論을 特히 重要視한 代表的인 醫家로서 그는 『靈樞·本神』에서 “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謂之魂，并精出入謂之魄，所以任物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有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라고 한 理論을 비롯하여 「邪客」·「五味」·「營衛生會」·「刺節眞邪」·「決氣」·「五癯津液別」·「天年」·「本臟」·「脹論」·「衛氣失常」·「壽夭剛柔」·「平人氣象」·「五亂」·「病能」·「癡狂」·「口問」·「調經論」·「生氣通天」·「經脈別論」·「痹論」·「陰陽應象」·「四氣調神」·「舉痛」·「邪氣臟腑病形」·「淫邪發夢」·「上古天眞」·「六節臟象」·「靈蘭秘典」·「奇病」 등 篇에 흩어져 있는 精氣神에 關한 原文들을 內容 別로 匯集한 후, 體系的인 研究와 仔細한 分析을 通하여 보다 明瞭하

게 整理와 要約을 하였고 나아가서 發揮까지 하여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 記述하여 두었다.

周學海가 『讀醫隨筆·證治總論』에서 論述한 氣血精神의 理論은 韓醫學의 基礎理論과 臨床에 全般的으로 關聯되는 重要的 理論으로 그 學術價値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研究는 매우 未洽하여 단지 鄭의 論文 2篇(11)(12)과 魯의 論文 1篇(13)에서 簡略하게 考察한 것이 보일 뿐이다. 이에 著者는 周學海의 『讀醫隨筆·證治總論』의 「氣血精神論」에 關하여 原文을 中心으로 相關된 여러 文獻과 論文을 參照하여 全般的으로 研究하고 考察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周學海의 生涯와 著書

周學海는 淸나라 때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韓醫學의 發展에 重要的 貢獻을 하였다. 그는 古醫書를 校勘하고 評注하여 叢書로 編輯하여 널리 傳播하였고, 韓醫學의 診斷學 特히 脈診理論을 研究하여 크게 發展시켰으며, 또 醫學理論을 集大成하여 많은 創意的인 見解를 提示함으로써 韓醫學의 發展에 큰 動力이 되었다.

周學海는 字가 澄之(潛初, 健之)이고 中國 安徽省 建德사람이다. 『散原精舍文集』卷六의 “浙江候補道周君墓志銘”의 記載에 의하면 그는 淸·咸豐 6年(1856)에 태어나서 淸·光緒 32年(1906)에 卒하였다고 한다.

周學海는 官僚 집안 出身으로 어려서 學問을 좋아하였는데 幼年시절부터 私塾에 들어가 經史詞章의 學問에 깊게 心醉하였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서 光緒

4) 王慶其·周國琪 主編. 黃帝內經專題研究.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2. p. 72, 78.
5) 安治勳, 王玉琴. 精氣神關係小議. 中醫藥學報. 1988年 第4期. pp. 14-15.
6) 胡斌. 中醫學精氣神與現代醫學. 長壽. 1984年 第1期. pp. 10-12.
7)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8.
8) 陳兵. 內丹學精氣神說. 氣功與科學. 1988. 第3期. p. 6.
9) 王慶其 周國琪 主編. 黃帝內經專題研究.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2. p. 72, 78.
10)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6.

11)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655-674.
12) 鄭洪新. 周學海中醫基礎理論研究精華. 遼寧中醫雜誌. 2000. 第2卷, 第2期. pp. 92-94.
13)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 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 726-728. 魯兆麟, 周學海對 黃帝內經 精氣·昇降·亢喜承制·虛實補瀉理論的發揮.

乙酉年(1885)에 拔萃에 應試하였고 戊子年(1888)에 鄉試에 參加하여 及第하였으며 壬申年(1892)에 殿試에 通過하여 進士出身을 下賜받았다. 先後로 內閣中書, 浙江省候補知府, 江南楊洲府糧捕, 河務水利同知等 官職을 맡은 적이 있었고 通議大夫 三品銜에 誥授된 바가 있었다.

中年以後에는 持續된 過勞로 인한 여러 疾病으로 고생하자 그것을 契機로 삼아 奮發하여 醫學을 專攻하기 始作하였는데, 『黃帝內經』으로부터 着手하여 밤낮으로 研究를 하였고, 이어서 『傷寒論』, 『脈經』, 『神農本草經』, 『千金要方』 등 名著를 두루두루 탐독하였다. 그는 많은 書籍을 博覽함으로써 여러 가지 心得을 얻었는데 依託附會한 說은 絶대로 取하지 않았고 實事求是의 精神으로 精誠스럽게 精微로움을 追求하였다. 그는 諸家 중에서도 清代의 名醫인 張璐와 葉桂 두 醫家를 特別히 信奉하여 辨證하고 治療를 할 때에는 항상 張璐의 說을 取함과 同時에 本人의 臨床經驗을 結合시켰는데, 그의 學問과 經驗은 매우 豊富한 境地에 이르렀다.

비록 官吏로서 公務가 바빴지만 항상 醫書를 携帶하고 다니면서 點校과 評注를 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治病해 주기를 請해오면 官僚나 친구는 물론이고 보통 庶民들까지 누구든지 診療해주지 않음이 없었고 藥을 쓰기만 하면 바로 效驗을 보곤 하였으며, 혹 難治病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奇異한 效驗을 보곤 하였기에 一時에 長江 南北에서 크게 稱訟을 받게 되었다.

清代에는 朴學이 興起하여 考據之風이 盛行하게 되었는데, 儒學者들은 考據하는 方法을 使用하여 文字·音韻·訓詁·校勘의 次元에서 古籍을 研究하고 古義를 考證함으로써 매우 큰 成果를 이루었다. 乾隆과 嘉慶 後期에는 일부 學者들이 『內經』을 中心으로 한 韓醫學의 여러 古籍들에 대하여 集中的이고 專門的인 研究를 進行함으로써 古醫經의 本義로 하여금 世上에 크게 드러나게 하였다.

周學海도 그 影響을 받아 考證學의 方法으로 韓醫學의 古籍에 대하여 大規模의 研究와 整理를 하게 되었다. 光緒 17年 辛卯年(1891)에 周學海는 宋元 刻本

의 自家所藏의 醫學書籍에 依據하여 古醫書 12種을 校勘精審하여 出刊시켰다. 그 後에 또 次例로 史勘·張元素·劉完素·滑壽·葉桂 등 名醫의 著作을 評注하였다. 周學海의 學術思想은 이와 같은 著書들에 一貫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特別히 本人이 直接 著述한 『讀醫隨筆』과 『脈學四種』 등 著作에 集中的으로 反映되어 있는데, 그는 韓醫學의 理論과 診斷學의 發展에 매우 큰 貢獻을 하였다.

周學海는 名聲이 매우 높아 『清史稿』列傳에 실린 清代 名醫 중 몇몇 안 되는 한사람이 되었다.

周學海는 半平生이 넘은 精力을 들여 名家의 書籍을 編輯하여 여러 醫家들의 長點을 드러냈고 自身의 見解를 밝혀서 著述을 하였는데, 그는 30년이란 時間을 들여 끝내 『周氏醫學叢書』를 完成시켰다. 애석하게도 平生 心血을 기울이다 보니 極度의 疲勞로 心力이 交瘁하여 回甲이 되기 전에 그는 世上을 떠나게 되었다. 周學海는 一生동안 名利에 關心이 없었고 官僚가 된 후에도 布衣에 儉素한 飲食으로 生活하면서 오로지 盡心全力로 醫學 研究에만 沒頭하였는데, 이처럼 뼈를 깎는 努力으로 醫學의 理致를 探究하는 精神은 普通 學者들로서는 能히 미칠 수가 없는 것으로 眞正한 學者의 模範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氣血精神論에 관한 研究

周學海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精氣神 三者가 人間 몸에 있어서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精氣神에 대한 總括的인 整理를 해 주었다. 그는 「氣血精神論」의 첫머리에서 “醫者, 道之流也. 道家以精氣神謂之三寶, 不言血者, 賅於精也.”라 하여 血이 精에 內包되는 故로 氣血精神을 精氣神이란 세 개의 方面으로 歸納할 수가 있다고 하였고, “氣有三: 曰宗氣也, 榮氣也, 衛氣也. 精有四: 曰精也, 血也, 津也, 液也. 神有五: 曰神也, 魂也, 魄也, 意與智也, 志也, 是五臟所藏也.”라 하여 精氣神을 다시 氣는 三氣, 精은 四精, 神은 五神으로 大分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凡此十二者, 爲之人綱, 而其變則通於天地萬物, 而不可以數紀.”라 하여 이 三氣·四精·五神이라는 열두 가지가 人體 生命의 큰 기틀이 되어 그 變化가 天地

萬物에 通하여 해야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

精氣神을 각각 三氣·四精·五神으로 나누어 論한 周學海의 學術思想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氣에 관하여

周學海는 精氣神 中の 氣에 관하여 “氣有三하고 主於命門한다”고 要約을 하였다¹⁴⁾.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氣有三: 曰宗氣也, 榮氣也, 衛氣也.”라 하여 氣에는 세 가지 種類가 있어 그 이름이 각각 宗氣·衛氣·營氣라고 概括하였는데, 이와 같이 要約하여 分類한 것은 그가 『靈樞·邪客篇』에서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肺, 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而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라 하여 五穀이 胃로 들어간 후에 津液·宗氣·糟粕이 分爲三隧하면서 宗氣·營氣·衛氣를 形成한다는 理論에 根據를 두었던 것이다¹⁵⁾. 또 氣의 總體的인 大義에 대하여 그는 『內經』 각 篇에 흩어져 있는 氣에 관한 論述을 모아 整理하고 會通하여 “氣者, 無形而有機者也. 以其機之所動, 有三焦之分出也.”라고 그 核心을 概括하였다. 즉 氣는 生命物質로서 無形的이면서도 運動的인 特性을 갖고 있으며 三焦를 根源으로 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人體의 三氣인 衛氣·營氣·宗氣의 概念에 대하여 周氏는 『內經』의 理論을 整理하여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衛氣者, 本於命門, 達於三焦, 以溫肌肉·筋骨·皮膚, 慄悍滑疾, 而無所束者也. 營氣者, 出於脾胃, 以濡筋骨·肌肉·皮膚, 充滿推移於血脈之中而不動者也. 宗氣者, 營衛之所合也, 出於肺, 積於氣海, 行於氣脈之中, 動而以息往來者也.”라 하여 衛氣는 命門에 뿌리를 두고 三焦에 통하여 肌肉·筋骨·皮膚를 濡養하며 慄悍하고 滑疾하여 束縛된 바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營氣는 脾

胃에서 나와 筋骨·肌肉·皮膚를 濡養하며 血脈 중에 充滿되어 全身으로 운반되지만 動하지는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宗氣는 營衛가 舍해진 것으로 肺에서 나와 氣海에 쌓여서 氣脈의 가운데로 運行하고 그 움직임은 呼吸을 통하여 往來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概括하였다. 周氏는 또 三氣의 生理機能에 대하여 “衛氣者, 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水谷之所以能化者, 衛氣之功用也. 營氣者, 濕氣也. 凡經隧之所以滑利, 發膚之所以充潤者, 營氣之功用也. 宗氣者, 動氣也. 凡呼吸言語聲音, 以及肢體運動, 筋力強弱者, 宗氣之功用也.”라 하여 衛氣라는 것은 熱氣로서 무릇 肌肉이 能히 따뜻해질 수가 있고 水穀이 能히 轉化될 수가 있는 것은 모두 衛氣의 作用에 屬하고, 營氣라는 것은 濕氣로서 무릇 經隧를 滑利하게 하고 毛髮과 皮膚에 充滿되어 潤澤하게 하는 것은 모두 營氣의 作用에 屬하며, 宗氣라는 것은 動氣로서 무릇 숨을 쉬고 말하고 목소리를 내고 肢體를 움직이고 筋力의 強弱을 調節하는 것은 모두 宗氣의 作用에 屬한다고 總括하였다. 여기에서 周氏가 衛氣와 宗氣의 生理機能에 대한 要約은 韓醫學의 理致에 잘 符合되는 名句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 思料된다.

그리고 三氣의 病變에 관하여 周氏는 衛氣는 “虛則病寒, 實則病熱.”하고 營氣는 “虛則皴揭槁澀, 實則滄澤癢腫, 光浮於外.”하며 宗氣는 “虛則短促少氣, 實則喘噎脹滿.”한다고 각각의 特徵을 概括하였고, 또 “凡人之身, 衛氣不到則冷, 榮氣不到則枯, 宗氣不到則痿痺而不用. 此三者, 『內經』謂之肉苛, 謂其枯槁縮瑟, 而光彩不發也.”라 하여 衛氣와 營氣 그리고 宗氣의 機能이 弱화되면 각각 冷證·枯證·痿痺와 같은 病症이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結論의으로는 三氣의 病變의 特性에 대하여 “衛氣有寒熱病, 營氣有濕病·燥病, 宗氣有郁結病, 有勞倦病.”이라고 매우 簡潔하게 要約하였다. 周氏가 衛氣·營氣·宗氣에 대하여 이와 같이 一目瞭然하게 總括하고 歸納할 수 있는 것은 그가 『內經』에 대해 甚히 깊은 研究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외에도 周氏는 三氣의 病理變化에 대하여 『內經』을 中心으로 보다 具體的인 研究를 하였다. 『靈

14)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658-659.

15)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6.

樞·壽夭剛柔篇』을 보면 營氣病과 衛氣病의 發病 特徵에 대하여 “營之生病也, 寒熱少氣, 血上下行. 衛之生病也, 氣痛, 時來時去, 怫愾賁響, 風寒客於腸胃之中, 寒痺之爲病也, 留而不去, 時痛而皮不仁.”이라 하였고, 『素問·平人氣象篇』을 보면 宗氣가 泄하는 病變의 特徵에 대하여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膈絡肺, 出左乳下, 其動應脈, 宗氣也, 其動應衣, 宗氣泄也.”라 하였는데, 周氏는 이상 病症들의 發病 機理가 “三氣之白散”에 있다고 概括하였다. 또 『靈樞·五亂』을 보면 “氣亂於心, 則煩心密默, 俯首靜伏, 亂於肺, 則俯仰喘喝, 接手以呼, 亂於腸胃, 則爲霍亂, 亂於脛臂, 則爲四厥, 亂於頭, 則爲厥逆, 頭重眩仆.”이라 하여 氣亂於心·氣亂於肺·氣亂於腸胃·氣亂於脛臂·氣亂於頭에 의하여 發生하는 病變에 대하여 說明하였고, 『素問·病能』을 보면 “有病怒狂者, 病名曰陽厥. 陽氣者, 因暴折而難決, 故善怒也. 何以知之? 陽明者常動, 巨陽·少陽不動, 不動而動大疾, 此其候也.”라 하여 巨陽과 少陽이 크게 動하여 發生하는 大疾의 發病原理를 說明하였으며, 『靈樞·癰狂』을 보면 “厥逆爲病也, 足暴滿, 胸若將裂, 腸若將以刀切之.”이라 하여 厥逆으로 發生하는 病變의 症狀를 論하였고, 『素問·著至教論』을 보면 “三陽獨至者, 是三陽并至, 并至如風雨, 上爲巔疾, 下爲漏瀝.”이라 하여 “三陽并至”로 因하여 發生하는 病症을 論하였으며, 『靈樞·口問』을 보면 “人之白嚙舌者, 此厥逆上走, 脈氣輩至也. 少陰氣至則嚙舌, 少陽氣至則嚙頰, 陽明氣至則嚙唇矣.”라 하여 嚙舌·嚙頰·嚙唇의 病症이 發生하는 原因이 “厥氣上走”하여 “脈氣輩至”함에 있다고 論하고 있고, 『素問·調經』을 보면 “氣血以并, 陰陽相傾, 氣亂於衛, 血逆於經, 血氣離居, 一實一虛. 血并於陰, 氣并於陽, 故爲驚狂; 血并於陽, 氣并於陰, 乃爲寤中; 血并於上, 氣并於下, 心煩惋, 善怒; 血并於下, 氣并於上, 亂而善忘. 氣之所并爲血虛, 血之所并爲氣虛, 血氣相失, 故爲虛焉, 血與氣并, 故爲實焉.”이라 하여 氣血의 昇降 異常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여러 가지 病變에 대하여 論하였는데, 周氏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病症의 發病 機理가 모두 다른 아닌 “三氣之并而相亂”에 있다고 概括하였다. 또 『素問·調經』을 보면 “陽虛生外寒者, 陽受氣於上焦, 以溫

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則寒氣獨留於外, 故寒栗. 陰虛生內熱者, 有所勞倦, 形氣衰少, 谷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熏胸中, 故內熱. 陽盛生外熱者, 上焦不通利, 則皮膚致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陰盛生內寒者,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 不瀉則溫氣去, 寒獨留, 則血凝泣,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澀, 故中寒.”이라 하여 陽虛生外寒과 陰虛生內熱 그리고 陽盛生外熱과 陰盛生內寒의 發病 機轉에 관하여 論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을 보면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陽不勝其陰, 則五臟氣爭, 九竅不通.”이라 하여 陰不勝其陽과 陽不勝其陰으로 인한 發病에 관하여 論하였는데, 周氏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病症들의 發病 機轉을 “三氣之虛實相勝”이라고 概括하면서 所謂 말하는 “陰虛陽往, 營竭衛降.”이 바로 이런 경우에 該當된다고 說明하였다.

周學海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三氣에 대하여 仔細하게 論述한 다음에 한층 더 나아가서 “氣之主는 主於命門이라”고 하여 三氣는 다른 아닌 命門에서 主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사실 周氏의 이 說은 『難經』의 理論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難經·八難』을 보면 “八難曰 寸口脈平而死者, 何也? 然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氣者, 人之根本也. 根絕則莖葉枯矣. 寸口脈平而死者, 生氣獨絕於內也.”라 하여 人間의 몸에 生氣之原이 있어 腎間動氣라고 부르는데 이 腎間動氣는 五臟六腑의 根本이고 十二經脈의 뿌리이고 呼吸의 門이고 三焦의 根源이니 그런 故로 氣는 사람의 根本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라 하여 腎間動氣의 重要性을 다시 強調하여 說明하였으며, 나아가서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 하여 具體의으로 命門이 여러 精神이 머무르는 바이고 原氣의 메인 바이니 남자는 精을 감추고 여자는 胞를 메인 바이라고 하였다.

周氏は 바로 이와 같은 『難經』의 理論을 根據로 一身之氣의 根本을 命門에 歸屬시켜 “氣之主는 主於命門이라”는 學說을 主張하게 된 것이다.

2) 精에 관하여

周學海는 精氣神 中の 精에 관하여 “精有四하고 主於腎한다”고 要約을 하였는데¹⁶⁾, 이는 周氏가 『靈樞·決氣篇』에서 精·氣·津·液·血·脈 등에 관하여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上焦開發, 宣五谷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谷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曲伸, 泄澤補益髓, 皮膚潤澤, 是謂液.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謂血.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이라고 論述한 內容과 『靈樞·五癆津液別篇』에서 津·液·汗·溺·氣·泣·唾 등에 관하여 “水谷入口, 輸於腸胃, 其味有五, 各注其海, 其液別爲五, 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 爲液. 天暑衣厚, 則腠理開, 故汗出; 天寒衣薄, 腠理閉, 氣濕不行, 水下溜於膀胱, 則爲溺與氣. 悲哀氣并, 則爲泣. 中熱胃緩, 則爲唾.”라고 論述한 內容, 그리고 『內經』에 散在하여 있는 기타 相關 內容들을 研究하고 整理하여 이와 같은 結論을 얻어낸 것이다¹⁷⁾.

周氏は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精有四: 曰精也, 血也, 津也, 液也.”라 하여 精에는 네 가지 種類가 있어 그 이름이 각각 精·血·津·液이라고 概括하였는데, 이와 같이 精·血·津·液을 精이라는 하나의 概念속에 모두 包括시킨 理由에 대하여 그는 “本神曰, 五臟主藏精者也, 故統謂之精.”이라 하여 『靈樞·本神篇』에서 “五臟主藏精者也.”라 하여 五臟의 生理特性이 主로 精을 貯藏하는데 있다는 理論을 根據로 五臟에 貯藏되어 있는 精·血·津·液을 모두 統稱하여 精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說明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靈樞·決氣』와 『靈樞·本神』등 篇에 대한 研究를 通하여 精의 總體의인 核心大義를 “精者, 有形者也. 有形則有質, 以其質之所別, 有四等之不同也.”라고 概括하였

는데, 즉 말하자면 形과 質이 있는 것이 바로 精이고, 또 精·血·津·液도 모두 形과 質을 갖춘 特性을 갖고 있으니 이들은 모두 精의 概念속에 從屬시킬 수가 있고, 또한 거꾸로 그 精의 質에 각기 다른 네 가지가 있기에 精을 精·血·津·液으로 달리 命名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¹⁸⁾.

周氏は 여기에서 精·血·津·液의 각기 다른 質에 대하여 보다 仔細하게 整理를 해 주었는데, 그는 『氣血精神論』에서 “血之質最重濁, 津之質最輕清, 而液者, 清而晶瑩, 厚而凝結, 是重而不濁者也, 精者, 合血與津液之精華, 極清極厚, 而又極靈者也.”라 하여 血의 質이 가장 重濁하고, 津의 質이 가장 輕清하며, 液의 質은 맑으면서도 맑고 透明하며 두터우면서 凝結된 것이니 이것은 重하나 濁하지 않은 것이며, 精은 血과 津液의 精華로 合해진 것으로 至極히 맑고 至極히 두터우며 또한 至極히 神靈한 것이라고 하였다.

周氏は 精·血·津·液의 質이 이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生成과 作用 또한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氣血精神論』에서 血에 관하여 “夫血者, 水谷之精微, 得命門眞火蒸化, 以生長肌肉皮毛者也.”라 하여 水穀의 精微로움이 命門眞火의 蒸化를 받아 생겨나서 肌肉과 皮毛를 자라게 하는 것이 血이라고 概括하였고, 精에 관하여 “精者, 血之精微所成, 生氣之所依也. 生氣者, 衛氣之根, 卽命門眞火是也, 精竭則生氣絕矣.”라 하여 血의 精微로운 것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또 生氣가 의지하는 바가 되는 것이 精이라고 概括하였는데, 生氣에 대해서는 좀 더 具體的으로 그것이 衛氣의 根源으로 다음 아닌 命門眞火가 곧 生氣이며 精이 다하면 곧 生氣가 끊어진다고 덧붙여 說明하였다. 또 津에 대하여 “津亦水谷所化, 其濁者爲血, 清者爲津, 以潤臟腑·肌肉·脈絡, 使氣血得以周行通利而不滯者此也. 凡氣血中, 不可無此, 無此則槁澀不行矣.”라 하여 같은 水穀에서 化하여 濁한 것은 血이 되고 清한 것은 津이 되는데 津은 臟腑·肌肉·脈絡을 潤滑하게 하고 氣血의 周行을 通利하게 하여 鬱滯되지 않게 하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氣血속에 津이 없어서는 안되고

16)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17)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6.

18)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만약 津이 없게 되면은 槁澀하여 氣血이 運行하지 못하게 된다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液에 관하여서는 “液者, 滄而極厚, 不與氣同奔逸者也, 亦水谷所化, 藏於骨節筋會之間, 以利屈伸者.”라 하여 水穀에서 化生하되 끈적거리고 質이 매우 厚하며 氣와 함께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液이라고 하면서 液은 骨節과 筋會之間에 간직되어 있어 屈伸을 이롭게 하는 役割을 한다고 說明하였다.

周氏는 또 人體에 있어서의 精·血·津·液의 部類와 特徵들에 대하여 具體적인 例를 들어 說明을 가하였는데, 그는 “凡人身筋骨肌肉皮膚毛發有形者是 皆血類也. 髓與腦, 皆精之類也. 發於外者, 淚唾汗, 皆其類也. 小便, 其糟粕也. 其外出於孔竅, 曰涕曰涎, 皆其類也.”라 하여 人體의 筋·骨·肌肉·皮膚·毛發 등과 같은 有形之物은 모두 血의 部類에 屬하고, 髓와 腦는 모두 精의 部類에 屬하며, 體外로 發散되어 나오는 淚·唾·汗과 같은 것은 모두 津의 部類에 屬하고 小便같은 것은 津의 糟粕에 屬하며, 孔竅의 밖으로 흘러나오는 涕나 涎은 것은 모두 液의 部類에 屬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精·血·津·液이라는 이 네 가지는 重要的 生命物質로서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는데 반드시 必要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周氏는 이토록 重要的 生命物質인 精·血·津·液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特別히 言及한 바가 있는데, 그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四者之在人身也, 血爲最多, 精爲最重, 而津之用爲最大也.”라 하여 人體에서 가장 많은 것이 血이고 가장 重要的 것이 精이지만 그 쓰임이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津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津의 쓰임에 대해서는 다시 具體적으로 “內之臟腑筋骨, 外之皮膚毫毛, 卽夫精也血也液也, 莫不賴津以濡之, 乃能各成其體而不敝.”라 하여 身體 內外的 臟腑·筋骨·皮膚·毫毛 등을 비롯한 모든 組織은 어느 것도 例外가 없이 모두 津의 濡養에 의지해야만 그 形體를 形成하고 維持하여 무너지지 않으며, 精이나 血이나 液이라도 역시 津의 濡養이 있어야만 正常的인 機能을 維持할 수가 있다고 說明하였으며, 또 “四精爲陰, 而津爲陰之陽.”이라 하여 津이 陰에 屬하

는 精血津液 중에서도 相對적으로 陰中之陽에 屬하는 特性이 있다고 하였다¹⁹⁾. 그는 津의 絕對性을 한층 더 強調하기 위하여 “津枯則精血可粉이오 毛發可折이라”는 強力한 表現까지 使用하였으니 津의 重要性에 대한 周氏의 學術思想을 깊이 體得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精血津液은 人體 必需의 生命物質로서 쉽게 消耗되는 傾向이 있기에 그 病理變化도 흔히 이와 相應하는 特徵을 나타내곤 하는데, 『靈樞·決氣篇』에서 “精脫者, 耳聾. 氣脫者, 目不明.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酸, 耳數鳴. 血脫者, 色白, 天然不澤, 脈脫者, 其脈空虛.”라고 한 精脫·津脫·液脫·血脫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에 該當되는 病症들이다²⁰⁾. 또 『素問·經脈別論』에서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라고 한 것에 대하여 周氏는 精血津液의 理論으로 “此非汗出於臟也, 各因其臟氣之動, 鼓津以外出也.”라고 分析을 하였는데, 즉 이것은 汗이 臟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 臟의 氣가 動하여 津을 鼓動시켜 밖으로 出하게 한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그리고 『靈樞·營衛生會篇』에서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 한 것에 대하여 “夫汗卽津也, 其與血, 非一物也. 而有無相應者? 氣相應也. 故三氣爲陽, 而營爲陽之陰, 以氣與津并與. 四精爲陰, 而津爲陰之陽, 以津隨氣行也.”라 하여 여기서 말하는 汗을 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 辟積於夏, 使人煎厥. 日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以止.”라고 한 것에 대하여 “精絕者, 津耗也.”라고 分析하여 津의 重要性을 다시 強調하였고, 나아가서 葉香岩이 『溫熱論』에서 “養陰不在補血, 而在生津.”이라고 主張한 것과 王孟英이 다시 이 말을 “此增水行舟之法也.”라고 解釋한 것을 들어 精血津液 중에서 津이 매우 重要함을 재차 言及하였다.

19)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7.

20)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周學海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精에 대해 仔細하게 論한 다음에 또 “精之主는 主於腎이라”고 하여 精은 五臟 중에서도 腎에서 主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사실 周氏의 이 說은 『內經』의 理論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시 한번 強調한 것에 不過하다. 『素問·上古天真論』을 보면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 乃能瀉.”라 하여 腎은 水를 主하고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藏하는 故로 五臟이 盛해야 能히 精을 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즉 말하자면 腎이 五臟六腑의 精을 總管하여 貯藏시키는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또 『素問·六節藏象論』을 보면 “腎者主蛰, 封藏之本, 精之處也.”라 하여 腎이 蟄藏을 主하니 封藏의 本이 되고 精의 居處가 된다고 하였는데, 다름 아닌 腎에서 精을 主管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周氏가 主張하는 “精은 腎에서 主한다”는 說은 『內經』에서 이미 確立한 理論이고, 歷代 醫家들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는 說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精과 腎과의 絶對的인 關係를 알 수가 있으며, 精을 論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腎을 論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3) 神에 관하여

周學海는 精氣神 중의 神에 관하여 “神有五하고 主於心膽한다”고 要約을 하였다²¹⁾.

그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神有五, 曰神也, 魂也, 魄也, 意與智也, 志也, 是五臟所藏也.”라 하여 神은 다섯 가지로 分類되는데 각각 神·魂·魄·意·智·志라고 부르며, 이 神·魂·魄·意·智·志라는 五神은 또 五臟에 의하여 따로따로 貯藏되어 있다고 概括하고 있다. 周氏의 이 와 같은 主張은 사실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五臟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臟所藏.”이라 한 理論에 根據하여 要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²²⁾. 즉 말하자면 神·魂·魄·意·智·志가 모두 人間의 神의 범주에 內包된다는

것이다.

周氏는 『內經』各篇의 神에 關聯된 內容들을 研究한 후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神의 總體的인 大義를 “神者, 無形無機而有用者也. 以其用之所成, 故推見五性之大本也.”라고 概括하였다. 즉 神의 含義는 精이나 氣와는 달리 無形하고 無機하되 有用한 것이 그 根本의 特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神의 有用性이라는 것은 곧 人體 生命活動의 體現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生命活動의 體現作用이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特性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神을 다시 다섯 가지 種類로 分類하여 神·魂·魄·意·智·志라고 부른다는 것이다²³⁾. 사실 周氏가 主張한 五神說은 『內經』에서 이미 完成되고 提示된 것으로²⁴⁾ 그가 『內經』의 理論을 超越한 것은 아니지만, 神의 根本의 含義와 神이 다섯 가지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根本의 基準點을 分明하게 밝혀준 것이 큰 意義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五神에 대하여 進一步로 論述하였는데 그는 “五神者, 血氣之性也. 喜怒思憂恐, 本於天命, 人而無此, 謂之大痴, 其性死矣.”라 하여 五神은 氣血을 스스로의 機能活動의 物質的인 基礎로 삼고 內로는 五臟에 藏해져 있고 外로는 五志인 喜·怒·思·憂·恐으로 反應되어 나타난다고 概括하였다²⁵⁾. 周氏의 이 說도 역시 『內經』에서 비롯된 것으로 『素問·六節藏象論』을 보면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臟,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이라 하였고 『靈樞·平人絕穀』에 “神者, 水穀之精氣也.”라 하였는데, 이 經文들은 모두 하늘의 다섯 가지 氣運과 땅의 다섯 가지 味에 의하여 人間의 臟腑와 氣血津液이 滋養되고, 그 充滿된 臟腑와 氣血津液이 다시 神의 物質的인 基礎가 됨으로써 神이 活力을 얻어 五色修明하

21)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22)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7.

23)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24) 王慶其·周國琪 主編. 黃帝內經專題研究.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2. pp. 78-80.

25)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고 音聲能彰하는 “神乃自生”의 調和 狀態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다. 즉 神의 自生에는 氣血津液이 매우 重要的 基礎가 됨을 強調한 것으로 周氏가 “五神者, 血氣之性也.”라고 要約한 것과 意味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五志에 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을 보면 “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 『內經』에서는 喜·怒·憂·思·悲·恐·驚의 七情에서 喜·怒·思·憂·恐의 다섯 가지를 擇하여 五行 分類法에 따라 五臟에 歸屬시키고 五臟의 氣에서 五志가 化生된다고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五神과 五志 그리고 五臟의 三者間의 相互關係를 總括하면, 五臟은 藏精化氣하여 五神을 生하고, 그 五神은 內的 또는 外的인 刺戟을 받으면 內에서 動하게 됨으로써 外에서는 五志가 相應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五臟은 五神과 五志의 物質의인 바탕이 되고, 五神과 五志는 五臟의 精氣를 物質의인 基礎로 삼아 生命活動으로 나타나되 五神은 主於內하고 五志는 現於外하는 陰陽의 兩面이라고 볼 수가 있다.

神의 特性에 대하여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然而神之病, 其變不可測, 而又最不易治, 則其本末不可不知也. 大抵神之充也, 欲其調; 神之調也, 欲其靜.”이라 하여 神은 그 變化가 莫測하여 알기 어려운 特徵이 있고 病變이 생기면 治療도 가장 어려우며, 神의 機能을 正常的으로 維持해 나가는데는 調神과 安靜이 가장 重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²⁶⁾. 이와 관련하여 『素問·生氣通天論』에 “陰平陽秘, 精神乃治.”라 하여 調神의 重要性을 強調하였고, 『素問·痺論』에 “陰氣者, 靜則神藏, 躁則消亡.”이라 하고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 靜則養神, 柔則養筋.”이라 하여 陰氣가 靜하여 平和로우면 神이 五臟에 藏하게 되고 陽氣가 靜하여 調和로우면 神이 滋養된다고 하였으며,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 大怒則形氣絕. 血菀於上, 使人薄厥. 有傷於筋, 縱, 其若不容.”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暴怒傷陰, 暴喜傷陽, 厥氣上行, 滿脈去形, 喜怒無度, 生乃不固.”라 하여 陰

陽氣血의 安靜이 破壞되어 크게 動하거나 傷하게 되면 神의 病變이 發生하게 된다고 하였다. 周氏는 또 『素問·四氣調神大論』의 大義를 “所惡者逆, 而所以奉生奉長奉收奉藏者, 必賴乎豫也.”라고 要約하여 四時의 陰陽에 順應하여 神을 다스리는 것이 重要하다고 說明하였다. 總的으로 神은 항상 靜하고자 하는 特性이 있는데 靜하면 神은 五臟으로 藏하게 되고 滋養될 수가 있으며, 또 神의 正常與否는 五臟에 달려있어 五臟의 氣血이 充盛하면 神이 藏하게 되고 五臟의 氣血이 失調하면 神이 病하게 된다고 要約할 수가 있다²⁷⁾.

그리고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五志를 五性이라고 달리 稱하면서 『內經』의 內容을 中心으로 五性之相制, 五性之病機, 五性之病之虛實, 五性之病因病形死期, 神病與夢之關係 등 主題에 관하여 論述한 바가 있다.

그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怒傷肝, 悲勝怒; 喜傷心, 恐勝喜; 思傷脾, 怒勝思; 憂傷肺, 喜勝憂; 恐傷腎, 思勝恐.”이라 하여 五性之間에 悲勝怒하고 恐勝喜하며 怒勝思하고 喜勝憂하며 思勝恐하는 相勝의 關係를 論한 것을 總括하여 이들은 모두 “五性之相制”에 屬한 內容들이라고 要約하였다. 또 『素問·舉痛論』에서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이라 하여 怒喜悲恐驚勞思 등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病理變化들을 論한 것을 한마디로 “五性之病機”에 屬한 것이라고 要約하였다. 그리고 『靈樞·本神』에서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 溼洩不利.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 少氣, 實則喘喝, 胸盈仰息.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臟不安.”이라 하여 論한 肝氣·脾氣·心氣·肺氣·腎氣가 虛하거나 實하여 나타나는 情志의 病變들을 總括하여 “五性之病之虛實”에 屬한 것들이라고 要約하였다. 여기에서 『內經』의 原文을 보면 “五性之病之虛實”에 該當되는 것은 “肝氣虛則恐, 實

26)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727.

27)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則怒.”와 “心氣虛則悲，實則笑不休.”라는 두개의 臟만 있을 뿐 나머지 세 개의 臟인 脾肺腎은言及이 없는데, 이에 관하여 周氏는 “脾肺腎三臟，不言神病者，已具肝心二臟之病之中，可推而知也.”라 하여 神의 病變이 주로 肝心 두 臟器의 病症에 흔히 나타나되 脾肺腎도 그 속에 함께 聯關이 되어 있으므로 脾肺腎 세 臟器에는 神의 病變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說明을 가하였다. 또 『靈樞·本神』에서 “心怵惕思慮則傷神，神傷則恐懼自失，破胭脫肉，毛悴色夭，死於冬；脾憂愁不解則傷意，意傷則惋亂，四肢不舉，毛悴色夭，死於春；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不精則不敢正當人，陰縮而攣筋，兩脇骨不舉，毛悴色夭，死於秋；肺喜樂無極則傷魄，魄傷則狂，狂者意不存人，皮革焦，毛悴色夭，死於夏；腎盛怒不止則傷志，志傷則善忘其前言，腰脊不可以俯仰屈伸，毛悴色夭，死於長夏；恐懼而不解則傷精，精傷則骨酸痿厥，精時自下。故五臟主藏精者也，不可傷，傷則失守而陰虛，陰虛則無氣而死矣.”라 하여 “心怵惕思慮”·“脾憂愁不解”·“肝悲哀動中”·“肺喜樂無極”·“腎盛怒不止”·“恐懼而不解” 등의 情志異常에 의하여 形體의 樣相이 異常하게 病들고 甚至於는 特定한 季節에 死亡하게 되는 病症들을 總括하여 이는 “五性之病因病形死期”에 屬한 것들이라고 要約하였다. 周學海는 또 “死於冬”하고 “死於春”하고 “死於秋”하고 “死於夏”하고 “死於長夏”하는 五性病變의 治法의 原則에 관하여 『內經』의 理論을 한층 더 闡明해 주었는데, 그는 “經曰 死於秋死於冬，則治之不當用秋冬之劑可知矣。經曰 死於春死於夏，則治之不得用春夏之劑可知矣。秋冬之劑者，寒燥斂降之劑也；春夏之劑者，溫熱升散之劑也。此治法之可以對觀而得也.”라 하여 五性病變에서 死於秋나 死於冬의 경우에는 寒燥斂降之劑를 쓰지 말아야 하고, 死於春이나 死於夏의 경우에는 溫熱升散之劑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說明하였다.

그 외에 周氏는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愁憂恐懼則傷心；形寒寒飲則傷脾；有所墮墜，惡血留內，有所大怒，氣上而不下，積於脇下，則傷肝；有所擊仆，若醉入房，汗出當風，則傷脾；有所用力舉重，若入房過度，汗出浴水，則傷腎.”이라 한 病變들과 『素問·經脈別論

』에서 “夜行則喘出於腎，淫氣病肺；有所墮恐，喘出於肝，淫氣害脾；有所驚恐，喘出於肺，淫氣傷心；度水跌仆，喘出於腎與骨。當是之時，勇者氣行則已，怯者則著而爲病也.”라고 한 病變들에 대하여 이들은 모두 外의인 行動居所가 適節하지 못한 關係로 臟腑가 損傷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神의 病變에서 가장 危篤한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凡察病機，惟鬼來克身，與子來泄氣，二者其勢最重.”이라 하여 鬼神의 邪氣가 몸에 닥쳐 禪하는 경우와 五性の 五行關係에서 子가 와서 母의 氣를 泄하는 경우가 가장 危重하다고 하면서 華佗가 “如心病入肝，是亦難治，子不合乘母之逆也。所謂思慮傷心，盛怒傷腎是也.”라고 말한 것을 實例로 삼아 說明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좀더 具體적으로 分析해 보면 “思慮傷心”의 경우에 思慮는 脾土의 五性이자 心火의 子가 되기에 “思慮傷心”하면 곧 “子來泄氣”하는 것에 該當이 되고, “盛怒傷腎”의 경우에 盛怒는 肝木의 五性이자 腎水의 子가 되기에 “盛怒傷腎”하면 역시 “子來泄氣”하는 것에 該當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周氏는 神의 病變은 흔히 꿈의 樣相에서 그 徵兆와 性質을 推測할 수가 있다고 主張하면서 『靈樞·淫邪發夢篇』의 內容이 바로 이와 같은 意味를 밝혀 준 것이라고 論하였다.

周學海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神에 대해 仔細하게 論한 다음에 또 “神之主는 主於心하고 而復從於膽이라”고 하여 神은 五臟 中에서도 心에서 主하고 나아가서는 膽에도 從屬된다고 主張하였다.

사실 周氏의 이 說은 『內經』의 理論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素問·靈蘭秘典論』을 보면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肺者相傳之官，治節出焉。肝者將軍之官，謀慮出焉。膽者中正之官，決斷出焉。膻中者臣使之官，喜樂出焉。脾胃者倉廩之官，五味出焉。大腸者傳道之官，變化出焉。小腸者受盛之官，化物出焉。腎者作強之官，伎巧出焉。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凡此十二官者，不得相失也，故主明則下安，……主不明則十二官危，使道閉塞而不通，形乃大傷.”이라 하여 五臟六

腑 중에서 心이 君主가 되어 神明이 나오는 바가 되니 心이라는 君主의 神明이 밝으면 다른 臟腑도 安定이 되고 心이라는 君主의 神明이 밝지 못하면 五臟六腑가 모두 위태로워져서 病이 크게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즉 말하자면 心이 五臟六腑의 神明의 主人이 된다는 것이다. 또 『素問·經脈別論』에 “太陰臟搏者, 用心省眞, 五脈氣少, 胃氣不平.”이라 하였는데 이는 過用其心함으로써 그 眞氣를 損傷시켜 五臟의 脈氣가 모두 약해지게 된 경우에 屬하며, 『脈經』에도 “思慮傷心, 其脈弦是也.”라 하였는데 이상의 內容들은 모두 神은 心에서 主하고 있다는 것을 說明해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素問·奇病』을 보면 “口苦者, 病名曰膽痺. 夫肝者, 中之將也, 取決於膽, 咽爲之使. 此人者, 數謀慮不決, 故膽虛氣上溢, 而口爲之苦矣.”라 하여 肝이 中正之官으로서 謀慮를 司하지만 最終의 決斷은 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膽의 役割을 強調하고 있고, 『素問·六節臟象論』을 보면 “凡十一臟皆取決於膽也.”라 하여 心·肺·腎·肝·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 등 十一臟의 機能의 正常發揮은 모두 膽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였으며, 張仲景은 또 “心氣虛則魂魄妄行.”이라 하였고 華佗는 “膽實熱則精神不守.”라고 하였는데, 이상은 모두가 神의 主가 心이 되는 外에 膽도 神에 대해 重要的 役割을 하기에 “復從於膽”한다고 主張하는 理論의 根據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은 五臟六腑 중에서도 特히 心·膽과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周氏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心膽神之主, 腦又神之會也, 故凡有思慮, 則日上注.”라 하여 心膽 以外에 腦가 또 神이 會聚하는 곳이 되어 깊이 思慮하는 일이 있으면 곧 兩目이 위로 쏠리는 現象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神에 대한 깊은 認識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²⁸⁾.

4) 精氣神의 相互關係에 관하여

精氣神 三者의 相互關係에 관하여 周氏는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大氣者, 精之御也. 精者, 神之宅

也. 神者, 氣與精之華也. 各生於五臟, 而五臟之中, 又各有所主. 是故氣之主, 主於命門; 精之主, 主於腎; 神之主, 主於心, 而復從於膽.”이라고 總括하여 氣라는 것은 精을 制御하는 役割을 하고, 精이라는 것은 神이 머무는 집이 되어주는 役割을 하며, 神이라는 것은 氣와 精의 精華로써 三者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 또 精氣神 三者는 각각 五臟에서 생겨나고 또 五臟에서 主宰하는 바가 각각 있어 氣는 命門에서, 精은 腎에서, 神은 心에서 主하되 膽에도 從屬된다고 하였다.

周氏는 또 精을 論함에 있어 精을 有形의 質에 따라 精血津液으로 分類하여 論하면서 “血之質最重濁, 津之質最輕清, 而液者, 清而晶瑩, 厚而凝結, 是重而不濁者也, 精者, 合血與津液之精華, 極清極厚, 而又極靈者也, 是神之宅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精血津液 중에서도 精이 血과 津液의 精華를 合하여 形成한 것으로 至極히 맑고 至極히 두터우며 至極히 神靈하여 다음 아닌 神이 머무는 집이 된다고 하였다. 즉 精은 神의 宅이 되고 神은 精의 主人이 됨으로써 兩者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周氏는 또 “五神者, 血氣之性也.”라 하여 五神이 血氣를 機能活動의 物質的인 基礎로 삼고 또 血氣에서 五神이 化生된다고 하였는데, 血氣는 곧 精氣이므로 여기서도 神과 精氣의 깊은 關係를 엿볼 수가 있다.

그 外에 周氏는 또 “又嘗論之, 氣之三也, 精之四也, 神之五也, 此十二者, 尤必以營衛爲之宰. 營衛之生也, 各具其體而不可相離也, 各成其用而不可相勝也, 各行其道而不可相干也.”라 하여 三氣·四精·五神이란 이 열두 가지는 特히 營衛를 主宰로 삼는다고 主張하여 人體에 있어서 營衛의 作用을 매우 強調한 바가 있다. 이는 周氏의 獨創의인 見解로서 一定한 理致가 있다고 思料된다²⁹⁾.

이상의 考察을 通하여 周學海의 精氣神論의 特徵을 살펴보면, 그는 精氣神을 三氣·四精·五神으로 論함에 있어 五臟을 中心으로 한 基礎위에 다시 五臟에

28) 鄭洪新, 周學海醫學全集·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29) 鄭洪新, 周學海醫學全集·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59.

五行을 配屬시킨 것이 가장 核心的인 特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는 “其合之於五臟, 則有肝木·心火·脾土·肺金·腎水, 五行之氣之不同也; 有肝淚·心汗·脾涎·肺涕·腎唾, 五液之精之各足也; 有肝魂·心神·脾意·肺魄·腎志, 五蘊之神之至靈也.”이라 하여 氣는 五行의 氣로, 精은 五臟의 精으로, 神은 五臟의 神으로 分類하였는데, 五臟 中心의 論述方式을 取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大氣者, 精之御也. 精者, 神之宅也. 神者, 氣與精之華也. 各生於五臟, 而五臟之中, 又各有所主. 是故氣之主, 主於命門; 精之主, 主於腎; 神之主, 主於心, 而復從於臆.”이라고 하여 精氣神이 서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모두 五臟에서 각각 생겨나고 또 五臟 中에서도 精氣神을 각각 主管하는 臟이 따로 있다고 하였는데, 역시 五臟을 中心으로 精氣神의 生成과 主宰하는 바를 論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周學海의 精氣神論의 가장 重要的 特徵이자 또한 『內經』에서 人體의 生理病理를 論하는 理論體系의 가장 重要的 特徵이기도 하다.

III. 結 論

周學海의 『讀醫隨筆·證治總論』에 나타난 氣血精神의 理論에 대한 研究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讀醫隨筆·證治總論』에 나타난 周氏의 氣血精神에 관한 理論과 思想은 『內經』의 理論을 根本으로 하고 『難經』과 여러 醫家의 學說과 本人의 見解를 綜合함으로써 形成된 것이다.

2. 周氏는 精氣神의 總體的인 大義에 대하여, 無形하고 有機하며 三焦를 根源으로 생겨나는 生命物質이 氣이고, 有形하고 有質하며 그 質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는 것이 精이며, 無形하고 無機하되 有用한 것이 바로 神이라고 하였다.

3. 周氏는 氣에는 衛氣·榮氣·宗氣라는 세 가지가 있

어 命門에서 主하고, 精에는 精·血·津·液이라는 네 가지가 있어 腎에서 主하며, 神에는 神·魂·魄·意·智·志라는 다섯 가지가 있어 心에서 主하고 다시 臆에 從屬된다고 하였다.

4. 周氏는 精氣神 三者의 關係는, 氣는 精을 制御하고 精은 神이 머무르는 집이며 神은 氣와 精의 精華로서 相互爲用하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각각 五臟에서 生하고 五臟에 藏하여 있다고 하였다.

5. 周氏는 衛氣는 命門에 뿌리를 두고 三焦에 통하며 營氣는 脾胃에서 나와 血脈 中에 充滿되며 宗氣는 營衛가 合해진 것으로 肺에서 나와 氣海에 쌓여서 氣脈을 運行하는 것으로서, 衛氣는 熱氣이고 營氣는 濕氣이며 宗氣는 動氣로서의 生理特性을 갖고 있으며, 衛氣에는 寒熱의 病變, 營氣에는 濕病과 燥病, 宗氣에는 鬱結病과 勞倦病이 각각 보인다고 하였다.

6. 周氏는 精·血·津·液에서 血의 質은 가장 重濁하고, 津의 質은 가장 輕清하며, 液의 質은 맑고 透明하며, 精의 質은 至極히 맑고 두터우며 神靈한데, 人體에서 血이 最多하고 精이 最重하나 用이 最大한 것은 津이며, 精·血·津·液의 病變은 흔히 不足하거나 虛脫되는 特徵이 있다고 하였다.

7. 周氏는 心은 藏神하고 肺는 藏魄하며 肝은 藏魂하고 脾는 藏意與智하며 腎은 藏志하는데, 神·魂·魄·意·智·志라는 五神은 氣血을 스스로의 機能活動의 物質的인 基礎로 삼아 內로는 五臟에 藏해져 있고 外로는 五志인 喜·怒·思·憂·恐으로 反應되어 나타나며, 神의 病變은 그 變化가 莫測하여 알기 어렵고 治療 또한 가장 어려우나 調神과 安靜이 神을 다스리는 가장 重要的 方法이라고 指摘하였다.

參考文獻

<논문>

1. 鄭洪新. 周學海中醫基礎理論研究精華. 遼寧中醫雜誌. 2000. 第2卷 第2期.
2. 鄭洪新·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陳兵. 內丹學精氣神說. 氣功與科學. 1988. 第3期.
4. 安治勳, 王玉琴. 精氣神關係小議. 中醫藥學報. 1988. 第4期.
5. 胡斌. 中醫學精氣神與現代醫學. 長壽. 1984. 第1期.

<단행본>

1. 王慶其 周國琪 主編. 黃帝內經專題研究.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2.
2. 鄭洪新. 周學海醫學全書·周學海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研究集成(上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4.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上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上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